

119, 2021년에도 지원은 계속된다



양영석

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구급팀장

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화된 해이다. 자유로운 외출과 왕래가 불가능한 반면 화상 회의, 온라인 강의, 재택근무, 배달음식 등 사회·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해이기도 하다.

제주 119팀들도 방역 최전선에서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. 코로나19 확산세로 환자 이송업무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이송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왔다. 지난 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자 총 4207명을 병원과 격리시설 등으로 이송했으며, 진단검사를 위해 7201건의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등 코로나19 지원활동을 펼쳤다.

5분 대기조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.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심정지 환

자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자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신속한 병원 이송으로 28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.

특히 부서 간 협업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'119음압구급차 4대(국비 8억)'를 확보해 코로나19 속 이송 대응능력과 기동성을 높이기도 했다.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할 수 있는 '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 버스(국비 2.5억)'를 전국 최초로 제주에 배치하는 일도 있었다.

현재는 '5G 기술을 활용한 응급의료 케어 시스템'을 만들고 있다. 이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 ICT를 활용한 사상자 발생 시 중증도 분류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정보를 119종합상황실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'IoT 적용 긴급환자 이송 협력시스템'도 마련 중이다.

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사수하고 보다 안전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 119구급팀의 노력은 내년 신축년에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약속드린다.

11.7 X 15.2 cm